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 법무부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랜스젠더 차별법에 반대하는 간단한 소견서 발표

뉴욕과 워싱턴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소위 "화장실 법안"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0개의 주와 특별구를 연합하여 법정 조언자 보고서 제출

연합과 두 개의 추가 주에서 연방 정부의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차별 방지 지침에 대한 텍사스의 소송에 반대하는 두 번째 보고서 제출

Andrew M. Cuomo 주지사와 Eric T. Schneiderman 법무부 장관은 오늘 뉴욕 주는 10개의 주와 특별구를 연합하여 시와 지역단체에서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자들의 권리 보호 기능을 제한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법안의 노골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밖에 연합은 기타 두 개의 주와 함께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정부의 지침에 대한 텍사스 주의 상소에 반대하는 두 번째 법정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불화와 차별을 조장하는 법은 이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직접 훼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힘은 우리의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인들을 서로 갈라놓는 균열을 조장하려 할 때 그것에 맞서 싸워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Schneiderman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강제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과 불일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실행 불가능하며 법에 따라 평등하다는 미국인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직접 체험으로 압니다. 나의 사무실에서는 모든 미국인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을 위하여 매일 계속 싸울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H.B.2로도 알려진 노스캐롤라이나의 공공시설 사생활 및 안전 법안은 기본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샬럿시의 비차별 법령에 대응하여 2016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법은 지방 교육과 공공기관장에게 단일 성별 다중 이용 화장실 혹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생물학적 성별"을 "출생증명서에 명시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차별법에 대응하여 Cuomo 주지사는 3월에 행정 명령을 발표하여 불필요한 여행 주로 노스캐롤라이나 여행을 금지하였습니다. Schneiderman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노스캐롤라이나를 불필요한 여행 주로 금지하였습니다. 5월에 미국 정부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안전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및 주지사의 UNC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H.B.2의 이행 및 실시가 세 개의 연방 차별금지 법령을 어겼다고 하였습니다. 뉴욕과 연합은 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미국 정부의 소송을 지지하며 국가적인 경험으로 볼 때 노스캐롤라이나 법은 안전과 사생활 권리보호에 불필요한 법이며 대신 이 법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정당하지 않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뉴욕과 함께 보고서 제출에 동참한 기타 9개 주: 워싱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 및 컬럼비아 특별구.

또한, 이 연합에 뉴햄프셔와 델라웨어가 동참하여 텍사스 주가 트렌스젠더 학생이 그들의 성 정체성에 의하여 단일 성별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한 연방정부 지침에 대한 소송을 반대하는 두 번째 법정 조언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텍사스와 기타 몇몇 주에서 연방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방 정부의 공립학교에서 개인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지침에 반대하였습니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연방 보조금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반차별법 확장에 따라 발행한 지침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지지와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연방 지침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연합 보고서는 그런 피해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연방 지침이 없으면 트랜스젠더들이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볼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